

불안한 현실과 불확실한 미래, ‘자기계발’은 생존을 위한 선택

[TK_201502_TRY1925] 2015 자기계발 관련 인식 조사(TRK)

목차

I. Research Overview

1. 조사 개요
2. 응답자 특성

II. Research Summary

III. Research Finding

1. 자기계발 관심도
2. 자기계발 U&A 평가
 - 1) 現 자기계발 활동 여부
 - 2) 자기계발 이유
 - 3) 자기계발 분야
 - 4) 투자 시간
 - 5) 월평균 투자 비용
 - 6) 향후 자기계발 의향
3. 자기계발 인식 평가
 - 1) 자기계발은 자기 자신을 더 좋은 상품으로 만드는 것이다
 - 2) 자기계발은 자신의 내적성장 보다는 외부에서 보기에 좋은 스펙을 갖추는 것이다
 - 3) 자기계발을 열심히 하면 미래에 대한 불안을 낮출 수 있다
 - 4) 자기계발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경쟁력이 없다
 - 5) 자기계발과 취미생활은 같은 것이다
 - 6) 사람들은 내면을 성장시키는 자기계발을 선호한다
 - 7) 외모성형도 일종의 자기계발활동이다
 - 8) 대부분의 사람들이 뚜렷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자기계발을 하고 있다
4. 미래 전망 관련 평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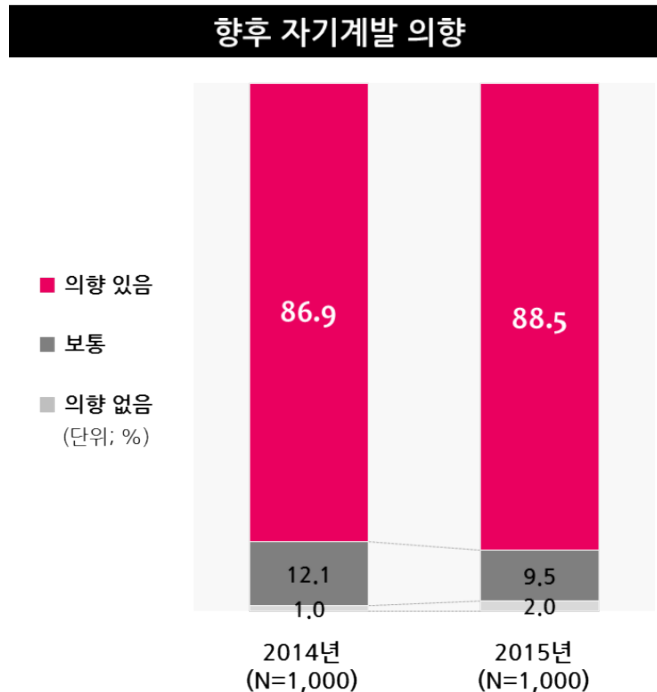
- 1) 나는 나의 10년 이후가 불안하다
- 2) 나는 10년 이후의 나의 삶이 기대가 된다
- 3) 나는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앞으로도 10년 동안 할 수 있을 것이다
- 4) 지금 하고 있는 직업은 향후 전망이 밝지 않다
- 5) 나는 월급(수입)이 적더라도 오랫동안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싶다
- 6) 나는 사회적으로 권위를 인정받는 직업을 갖고 싶다
- 7) 향후 가장 확실한 투자대상은 나 자신이다
- 8) 한국사회의 미래는 불투명하다
- 9) 한국사회에서 안정적인 직업을 찾는 것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
- 10) 대부분의 직업에서 서비스 정신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
- 11) 우리나라 사람들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업을 낮게 취급하는 경향이 있다
- 12)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비정규직이 현재보다 더 늘어날 것이다

불안한 현실과 불확실한 미래, ‘자기계발’은 생존을 위한 선택

직장인 83.6% “자기계발은 자신을 더 좋은 상품으로 만드는 활동”

- 직장인 81.1%가 자기계발에 관심, 향후 자기계발 활동 의향 증가세(14년 86.9%→15년 88.5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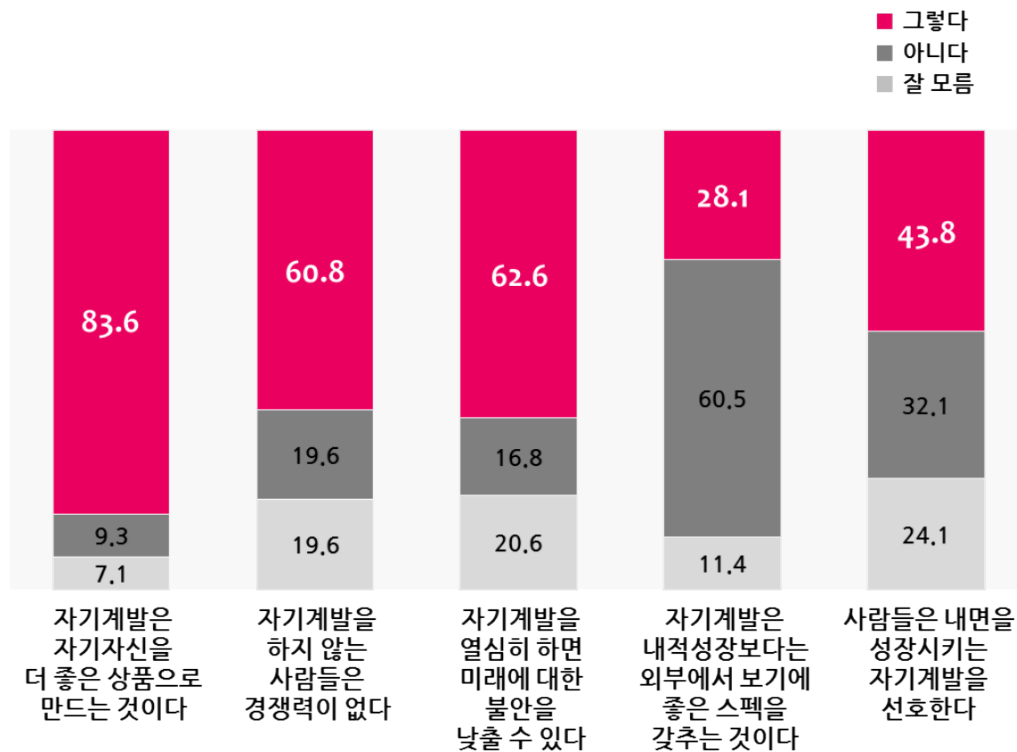
→ 시장조사전문기업 마크로밀엠브레인의 트렌드모니터(trendmonitor.co.kr)가 전국 만 19세~59세 직장인 남녀 1,000명을 대상으로 자기계발과 관련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, 직장인 10명 중 8명(81.1%)이 자기계발에 관심을 가지고 있을 만큼 자기계발에 대한 수요는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. 이는 2014년(79.5%)에 비해서도 소폭 상승한 결과이며, 성별(남성 80%, 여성 82.2%)과 연령(20대 83.2%, 30대 80.4%, 40대 81.2%, 50대 79.6%)에 관계 없이 자기계발에 대한 높은 관심은 모두 비슷하였다. 직급별로는 과장(86.5%)과 이사/임원(85%)이 사원(78.9%)과 대리(80.9%)보다 자기계발에 관심이 많은 경향을 보였다. 향후 자기계발 활동을 하겠다는 의향을 가진 직장인도 2014년 86.9%에서 2015년 88.5%로 보다 증가한 모습이었다. 직장인 대부분이 자기계발 활동의 필요성을 크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, 특히 젊은 직장일수록 자기계발을 하겠다는 다짐(20대 90.4%, 30대 89.6%, 40대 88.4%, 50대 85.6%)이 강하였다. 또한 대리(93.3%)와 과장(90.1%) 직급에서 자기계발 활동의향은 더욱 뚜렷했다.



- 83.6% “자기계발은 자신을 더 좋은 상품으로 만드는 것” 60.8% “자기계발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경쟁력 없어”

→ 자기계발에 대한 인식평가 결과에서도 전체 83.6%는 자기계발 활동이 자기 자신을 더 좋은 ‘상품’으로 만드는 것이라는 데 의견을 함께 했다.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경쟁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한 자기계발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으로, 대체로 연령이 높고(20대 80%, 30대 79.2%, 40대 87.2%, 50대 88%), 직급이 높을수록(사원 81.3%, 대리 78.7%, 과장 85.6%, 차/부장 84%, 이사/임원 95%, 대표/사장 93.9%) 공감하는 직장인이 많았다. 10명 중 6명(60.8%)은 자기계발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경쟁력이 없다고 단언하기까지 했다. 마찬가지로 연령(20대 52.4%, 30대 53.6%, 40대 67.6%, 50대 69.6%)과 직급(사원 51.7%, 대리 57.8%, 과장 60.4%, 차/부장 72.9%, 이사/임원 77.5%, 대표/사장 71.2%) 순서에 따라 공감수준이 대체로 비례하는 모습이었다. 이에 동의하지 않는 직장인은 전체 19.6%에 불과하였다. 자기계발을 열심히 하면 미래에 대한 불안을 낮출 수 있다는 의견도 62.6%에 달했으며, 특히 남성(65.8%)과 50대(72.8%), 이사/임원(77.5%)과 대표/사장(80.3%)의 이런 시각이 강했다.

자기계발 관련 전반적 인식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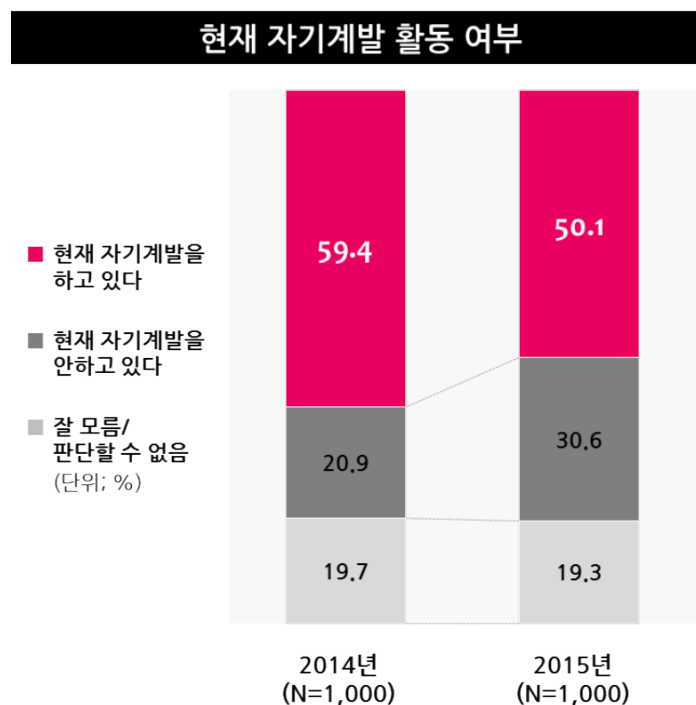
(Base: 전체, N=1,000, 단위: %)

- 28.1%만 “자기계발은 내적 성장보다 좋은 스펙을 갖추는 것” 그러나 “사람들이 내면 성장시키는 자기계발 선호” 43.8%뿐

→ 자기계발의 ‘목적’을 바라보는 시선에는 다소 이견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 먼저 자기계발 활동이 자신의 ‘내적 성장’보다 외부에서 보기에 ‘좋은 스펙’을 갖추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직장인은 28.1%로 적은 수준이었다. 상대적으로 30대(30.8%)와 40대(34%)가 자기계발을 스펙을 위한 것이라고 좀 더 많이 받아들였지만, 일반적으로는 자기계발이 스펙보다는 개인의 내적 성장을 위해 필요한 활동이라는 ‘개인의 인식’이 강한 것을 알 수 있다. 그러나 실제 사람들이 내면을 성장시키는 자기계발을 선호한다는 시각에 공감하는 직장인은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43.8%였다. 자기계발의 목적에 대한 개인의 생각과는 달리 현실에서는 많은 직장인들이 스펙쌓기나 이직과 승진 등 분명한 목적을 위해 자기계발 활동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. 실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뚜렷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자기계발을 하고 있을 것이라는 시각에 동의하는 직장인(37.3%)과 동의하지 않는 직장인(36.6%)은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다. 반면 자기계발과 취미생활은 같은 것이라는 의견에는 동의 의견(33.5%)보다 비동의 의견(52.8%)이 우세하였다. 한편 직장인의 57.7%는 외모성형도 일종의 자기계발 활동이라고 바라보는 것으로 나타났다. 외모가 곧 경쟁력인 사회의 모습을 반영하는 결과로, 30대(62.8%)와 40대(63.6%) 직장인과 이사/임원(67.5%)과 대표/사장(65.2%) 직급이 외모의 중요성을 보다 강조하였다.

- 하지만 실제 자기계발 활동을 하고 있는 직장인 오히려 줄어들어(14년 59.4%→15년 50.1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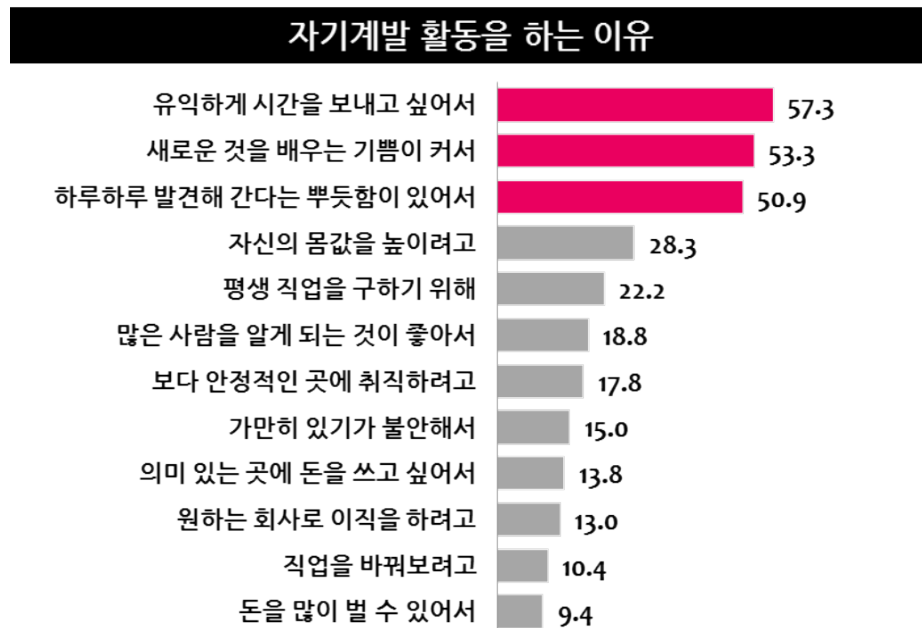
→ 하지만 이렇게 높은 자기계발에 대한 관심과 의향에 비해 실제 실천을 하고 있는 직장인은 그리 많지 않은 편이었다. 현재 자기계발 활동을 하고 있는 직장인은 2명 중 1명(50.1%)꼴로, 2014년(59.4%)보다 자기계발을 하고 있는 직장인은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. 그나마 젊은 직장인들이 자기계발 활동을 비교적 많이 하는 편이었으며(20대 58.4%, 30대 53.2%, 40대 44.4%, 50대 44.4%), 대리(56.9%)와 과장(55.9%), 대표/사장(56.1%) 직급의 직장인이 다른 직급보다 자기계발에 많이 공을 들이는 모습이었다. 반면 자기계발 활동을 하지 않고 있다는 응답은 전년보다 크게 증가하였으며(14년 20.9%→15년 30.6%), 판단을 못하겠다는 응답도 19.3%였다.



- 현재 자기계발 활동을 하는 이유는 “유익한 시간과 새로운 배움, 발전해 간다는 뿌듯함 때문”

→ 현재 자기계발 활동을 하고 있는 직장인들은 주로 유익하게 시간을 보내고 싶고(57.3%, 중복응답), 새로운 것을 배우는 기쁨이 크며(53.3%), 하루하루 발전해 간다는 뿌듯함이 있어서(50.9%) 자기계발 활동을 한다는 응답을 많이 했다. 유익함이나 보람과 같이 어떤 활동을 통해 얻을 수 있는 ‘성취감’이 자기계발 활동의 가장 큰 동기라는 것을 알 수 있다. 물론 자신의 몸값을 높이고(28.3%), 평생 직업을 구하고(22.2%), 보다 안정적인 곳에 취직하려고(17.8%) 자기계발을 하는 분명한 ‘목적성’을 가진 직장인들도 많았다. 연령별로 보면 50대는 유익한 시간(66.7%)과 새로운 배움(59.5%)에 대한 갈망이 매우 컸으며, 30대와 40대는 각각 자신의 몸값 상승(30대 45.1%)과 발전한다는 뿌듯함(40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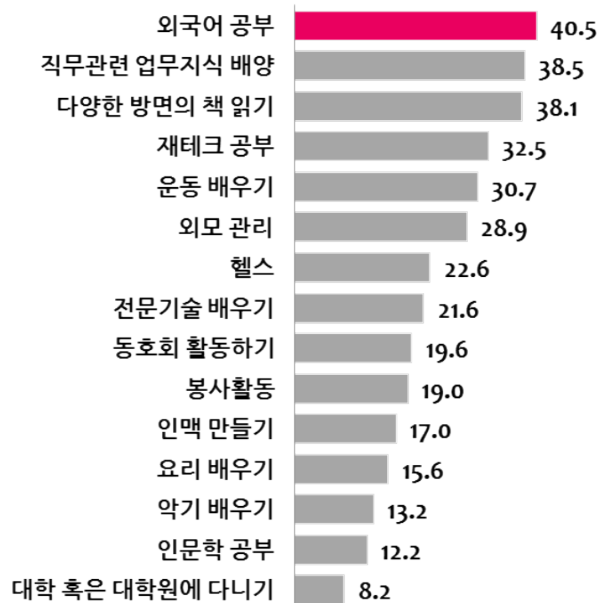
63.1%)에 주로 자기계발 활동의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강했다.



(Base: 현재 자기계발 활동을 하고 있는 응답자, N=501, 단위: 중복 %)

- 직장인들이 많이 하는 자기계발 활동은 ‘외국어 공부’, ‘직무 지식 배양’, ‘독서’, ‘재테크 공부’ 순
 → 직장인들이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자기계발 활동은 외국어 공부(40.5%, 중복응답)로, 특히 20대 직장인들(46.6%)이 외국어를 많이 배우고 있었다. 직무관련 업무지식 배양(38.5%)과 다양한 방면의 독서(38.1%), 재테크 공부(32.5%)를 하고 있는 직장인들도 많았다. 그밖에 운동(30.7%)과 외모관리(28.9%), 헬스(22.6%) 등 건강과 뷰티 분야를 자기계발 활동으로 인식하는 직장인들도 적지 않았으며, 전문기술 배우기(21.6%), 동호회 활동(19.6%), 봉사활동(19%) 등이 그 뒤를 이었다.
 자기계발에 투자하는 시간은 보통 하루 2~3시간(25.9%) 또는 1~2시간(23.6%)이었으며, 자기계발 투자비용으로는 한 달 기준 5~10만원(24.6%), 10~20만원(21.8%), 5만원 미만(12.2%) 등 주로 20만원 미만의 금액이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.

현재 하고 있는 자기계발 분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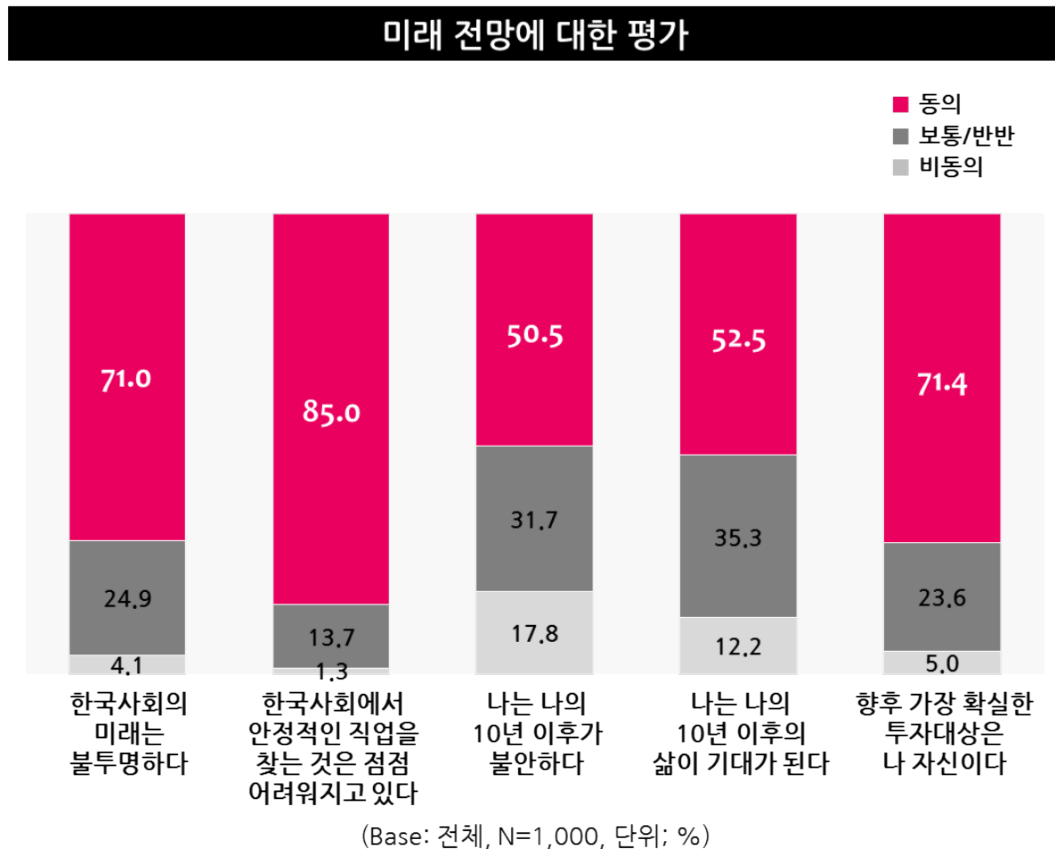


(Base: 현재 자기계발 활동을 하고 있는 응답자, N=501, 단위; 중복 %)

- 직장인 71% “한국사회의 미래 불투명해” 2014년(62%)보다 높아, 젊은 층이 더 어둡게 전망해
→ ‘미래 전망’에 대한 평가에서는 직장인들이 느끼는 미래에 대한 ‘불안감’이 얼마나 큰 지가 잘 묻어나고 있었다. 직장인 10명 중 7명(71%)이 한국사회의 미래를 불투명하다고 바라보는 것으로 나타났다. 2014년 같은 조사(62%)와 비교했을 때, 훨씬 많은 직장인들이 우리사회의 미래를 어둡게 전망하고 있는 것이다. 특히 20대 젊은 직장인들이 다른 연령에 비해 한국사회 미래가 불투명하다는 인식(20대 75.2%, 30대 71.2%, 40대 72.8%, 50대 64.8%)을 더 많이 가지고 있었으며, 직급별로도 젊은 직원들의 비관적인 전망(사원 73.1%, 대리 70.2%, 과장 65.8%, 차/부장 70.1%, 이사/임원 67.5%, 대표/사장 65.2%)이 뚜렷한 특징을 보였다. 또한 한국사회에서 안정적인 직업을 찾는 것이 점점 어려워질 것이며(14년 83.1%→15년 85%), 앞으로 비정규직이 현재보다 더 늘어날 것(14년 75.7%→15년 80.2%)이라는 부정적인 시각이 지난해보다 커진 것도 한국사회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. 비정규직의 증가에 대한 의견의 경우는 실제 비정규직의 비중이 높은 여성 직장인(84%)이 남성 직장인(76.4%)보다 공감하는 경향이 보다 뚜렷했다.

- 직장인 2명 중 1명 “나의 10년 이후가 불안” 특히 30대, 40대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큰 편
→ 직장인 2명 중 1명(50.5%)은 ‘나의 10년 이후’도 불안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. 특히 30대(54.8%)와 40대(56.8%)가 자신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다른 연령보다 강한 모습이었다. 물론 10년 이후의 자신의 삶이 기대된다거나(52.5%),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앞으로도 10년 동안 할 수 있을 것이다(49%)는 기대와 자신감을 가진 직장인도 적지는 않았지만, 상당수의 직장인이 바라보는 자신의

미래가 결코 낙관적이지만은 않은 것이다. 3명 중 1명(33%)은 현재 직업의 향후 전망이 밝지 않다는 의견도 밝혔다. 게다가 이에 대한 비동의 의견, 즉 지금 하는 일의 전망이 좋다고 느끼는 직장인이 26.2%에 불과하다는 점까지 고려하면, 직업의 불확실성이 그만큼 크다고 보여진다.



- 직장인 71.4% “향후 가장 확실한 투자대상은 자기 자신이다”

→ 이렇게 사회 전반적으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크다 보니, 직장인의 71.4%는 향후 가장 확실한 투자대상은 결국 ‘자기 자신’이라고 바라봤다. 20대(74%)와 30대(75.2%) 젊은 직장인들이 40대(66.8%), 50대(69.6%)보다 이런 의견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. 한편 직장인 10명 중 6명은 월급과 수입이 적더라도 오랫동안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어하며(60.4%), 사회적으로 권위를 인정받는 직업을 갖기를(58%) 바라고 있었다. 그 중 돈보다는 오래 일할 수 있는 직장을 선호하는 태도는 아무래도 연령이 높을수록(20대 48.8%, 30대 52.4%, 40대 62.8%, 50대 77.6%) 강한 모습이었다.

본 조사는 특정 기업의 의뢰 없이 마크로밀엠브레인의 콘텐츠사업부(트렌드모니터)의 자체 기획 및 자체 비용으로 진행되었습니다.